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4.1.

www.humankt.org

VOL. 16

[KT새노조 기획 #1]

100년 기업 kt를 무너뜨리는
‘반회사 세력’ 노사팀을 해체하라!

[KT새노조 기획 #2]

최악의 CEO 이석채의 7대 경영 재앙

100년 기업 kt를 무너뜨리는 ‘반회사 세력’ 노사팀을 해체하라!



“kt를 망친 것은 노무관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kt 경영진이 노무관리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본사에서 현업까지 따리를 틀고 있는 노무관리 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kt 내 현장과 경영진과의 소통을 막아 불통경영을 만들어 냈으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틀어막음으로써 kt를 ‘노동인권 침해 기업’이라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강압적 노무관리에 대한 것 만이 아니다. 노사관리를 명목으로 인사권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임직원들의 동기부여 기능을 상실시킨 반면, 노무관리 라인 자신들이 승진을 독점하며 인사체계의 골간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통을 인정하지 않는 노무관리 라인에 찍히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승진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직박탈이 되는 등 험악한 현장 분위기로 나타났고, 이는 허수 영업 등의 잘못된 행태로 이어지면서 kt 조직을 죽음과 같은 침묵의 문화로 만들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황창규 신임 회장 내정자가 반드시 혁신해야 할 가장 우선 순위로 노무관리 라인의 혁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kt 노무관리 라인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인사, 동기 부여인가 낙인 찍기인가 : 정상적 TM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발령공포

상품강매를 통한 허수영업을 비판하고, 낙하산 경영진을 비판하면 ‘반회사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 다음 어김없이 발령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무연고 원거리로 발령도 나고, 전혀 경험이 없는 업무도 부여한다. 언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완전 고립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어 가는 귀양자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kt직원들에게는 극단적 공포다. 고문이 두려운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문보다 고문에 울부짖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때의 공포가 훨씬 무겁다고 한다.



낙인이 찍히면 TM(Talent Market)으로 선발되어 발령 예정일이 나온 상태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TM이 취소되어 버린다. kt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여 직원 개인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는 지급하지만 연고지로는 보내주지 않는다. 고충처리로 연고지 발령을 요청하면 TM으로 가라고 한다. TM으로 선발되어도 취소시키는 현실에서 한 번 낙인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가 동기부여가 아니라 낙인 찍기의 수단이 된 기업에서 과연 누가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상품판매 실적 줄세우기, 영업강화 전략인가 노무관리 수단인가

상품 판매 실적만이 인사평가의 유일한 변별력이 될 정도로 직원들은 인맥으로 열심히 파는데 왜 kt영업실적은 뒷걸음질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GB를 도입한 후 직원 판매분이 아무리 늘어나도 kt영업실적이 계속 줄어든다면 GB도입의 딴 속셈이 의심스럽다. GB가 kt 실적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GB로 판매하는 핸드폰, 벌크로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이 판매하는 핸드폰은 똑 같은 kt폰이지만 값은 다 다르다. GB로 파는 폰이 가장 비싸다고들 한다. 직원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폰을 팔면서도 실적 스트레스에서 헤어날 못한다. 인사평가란 족쇄에 걸려 있어 움짱달짝 못하는 것이다. GB도입 이후 상품판매 강요가 마치 합법적인양 진행되고 있어 족쇄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이 족쇄를 노조가 도입했다고 하나, kt내 노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노사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노사협력팀이라 부른다. GB는 판매정책이 아니라, 직원들을 불합리한 영업정책에 대해 비판조차 못하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한 노무관리 방식이며 압박정책인 것이다. 그래서 kt 영업 정책은 현장에 의해 피드백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kt내 노사팀이 만든 침묵의 문화가 kt 영업경쟁력 마저 말아먹는다는 탄식이 나온다.

비판과 다른 의견이 허용 안 되는 불통의 기업 문화

kt는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5년 kt에서는 이석채 식 경영방식을 비판하면 무조건 ‘반회사세력’으로 매도됐다. 최근 검찰수사로 이석채 비리의 극히 일부가 공개되었고 그 결과를 보면 kt ‘반회사세력’은 누가 봐도 이석채이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석채를 비판하는 자들을 ‘반회사세력’으로 매도하며 자신들 조직의 영달을 추구했던 자들, 이석채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탄압을 자행한 자들이 바로 노사팀이었다.

그래서 kt ‘반회사세력’은 바로 노무관리 라인들이다. 이런 ‘반회사세력’이 황창규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리며 3년간 kt를 더 지배한다면, kt는 재기불능 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kt가 사는 길은 이들 ‘반회사세력’을 해체하고,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이다. 노사,인사,감사 등 이른바 노무관리 라인의 전면 교체가 곧 내부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사장, 본부장 군기 잡기 - “혁신은 없다. 관행만이 있을 뿐이다”

본사 출신의 새로운 본부장이나 지사장이 오면 지역노사팀에서 군기잡기 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온한 지역본부에 갑자기 지부장들이 투쟁 복을 입고 집합해서 한껏 힘과시를 하면, 새로 온 본부장은 상황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 어리둥절 정신이 없다. 이 때 노사팀이 홀연히 나타나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 짓고 노사팀은 존재감을 한껏 과시한다.

본사에서 내려온 본부장, 단장 입장에서 현업은 낯설고, 마치 서부시대 같이 황량하다. 이 때 인디언처럼 나타난 노조간부들로 당황한 본부장에게 보안관이 나타났으니 바로 노사협력팀인 셈이다. 얼마나 보안관이 고맙겠는가!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보안관(노사협력팀)은 인디언(노조지부장)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본부장을 제압한 것이다. 본사에서 내려올 때 있었던 혁신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노무라인들이 유도하는 대로 현장은 굴러간다. 노무라인 뜻대로 인사며 예산이 집행된다. 변하는 것은 없다. 관행만이 있을 뿐이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말거나 노무관리 라인들은 넓은 관행의 영원한 보안관이다. 이래서 kt 만악의 근원은 노무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요즘 kt노조에서 갑자기 조합원을 제명한다고 요란스럽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새로운 CEO가 부임하기 직전이다. 새 CEO 등장을 앞두고 그 동안 현업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 본사에서 그려지니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화합을 거부하고, 갈등과 대결에서 존재이유를 찾는 kt 어둠의 세력

새 CEO선임을 앞둔 kt 내부 구성원들은 모두가 마음이 착잡하다. 전임 이석채회장이 저질러 놓은 일 설거지에도 한 숨이 나오는데, 4/4분기 통신부문 실적이 적자로 나올 것이란 언론보도 들은 우리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려 들게 한다. kt 내외부에서는 황창규 신임 CEO에게 공통된 주문을 하고 있다. 소통하라는 것이다. 어떤 혁신적인 전략보다도 내부 성원들의 화합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며, 전임 회장의 몰락의 원인도 내부의 불화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노무관리 라인들은 늘 내부의 적을 필요로 한다. 이른바 ‘반회사세력’ 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극단적인 위기감과 적대감을 고조시킨다. 실제로 지사장들을 모아놓고 직원들 감시 똑바로 하라고 호통치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전 직원 성향분류를 지시하기도 한다.

“반회사세력”, “강성노조” 이야기의 진실공방을 떠나, 이런 극단적 평가르기로 kt가 혁신될 수 있을까! 100년 기업 kt호의 존망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 어느때 보다 화합이 필요한 때에 또다시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만을 확대하고 kt의 미래에는 일말의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반회사세력’은 바로 다름아닌 노사협력팀들이 아닐까?

최악의 CEO 이석채의 7대 경영 재앙



이석채 회장이 개인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 끝에 물러났다. 최악의 CEO로 기억될 이석채는 물러 갔지만 kt에 남겨진 상처는 깊다. 그는 “경영혁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경영재앙”이라고 불렀던 그의 5년간의 kt 경영을 KT새노조가 7대 재앙으로 정리해보았다.

1

팔고 또 팔아 쪼그라든 KT의 자산

부동산 39개, 1조원 어치 매각



부동산 39개 1조원 어치 매각- 매각 후 KT가 임대료 내며 사용
(이 중 27곳 감정가 대비 869억원 싸게 특정 펀드에 매각)

5천억 벌 무궁화 위성, 5억에 매각





[이석채 7대 경영재앙]

2 늘어나는 부실 M&A 의혹

1조 1,411억원 규모 대규모 M&A

회사명	kt투자액 (억 원)	실적(매출/당기순익)-억 원			특기사항
		2010	2011	2012	
kt클라우드웨어	213	-	71.5/ -40.3	67.9/ -86	자본잠식율 32.6%
넥스알	46	4.6/ 0.1	33.6/ 7.6	25.5/ -17.8	자본잠식율 46.3%
USTREAM KOREA	25.5	-	-	3.2/ -26.6	영업이익률 -846.4%
KT-SBds	188.7	-	0/ -2	4.4/ -44	영업이익률 -1,099%
엔써즈	160	32.5/ -1.9	35.7/ -15.1	48.5/ -31.0	2013년도 25억 적자 예상
kt OIC	67	0/ -7.1	0.4/ -7.6	3.5/ -15.7	친인척 관련
kt이노에듀 (구사이버MBA)	77.7	129/ -3	128/ 2	167/ 1	친인척 관련

이석채 전 회장은 “탈통신이 살 길”이라며 대규모로 M&A 및 기업분사를 당행했다. 그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32개 건으로 취득가액만 무려 1조 1,411억원 규모였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부실 M&A 의혹을 받았고 일부는 친인척이 관련된 것이어서 더욱 짙은 의혹을 받았다.

3 재앙이 된 전산시스템! BIT

2010.11 “4800억원 투자 전산통합 하겠다”

2013.9 “9000억 원에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2014.1 “500억 원 예산 들어 폐기할지
보완할지 검토 중”

이석채의 야심찬 통합 전산망, 일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던 BIT는 “전산시스템이 하나 더 늘기만 했다”는 냉소만을 안겨주었다. 먹통 시스템에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한 BIT! 도대체 앞으로도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 완전 개통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4 이석채가 건설한 낙하산 왕국, kt를 말아먹다!

최민희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kt 낙하산 인사 내역. 정치인, 법조인, 친인척, 언론인 심지어 불법 도청 관련자까지 통신회사에 끌어들었다.

이명박-박근혜 낙하산 연합군 KT 장악			
성명	KT 직책	경력	출신/분류
이석채	대표이사 회장	MB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회의/정통부 장관	MB, YS
홍사덕	KT 경영고문	박근혜 대선후보 선대본부장	박근혜캠프
김종인	KT 경영자문	박근혜 대선후보 경제민주화추진단장	박근혜캠프
김병호	KT 경영고문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단장	박근혜캠프
김정관	KT렌탈 IMC 본부장	박근혜 대선캠프 미디어팀장	박근혜캠프
박병원	사외이사	MB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민행복기금이사장	MB, 박근혜정부

임현규	비즈니스서비스 추진실 부사장	MB 대선캠프 홍보단장,이원종 YS수석에게 인사부탁시인	MB
김은혜	전무	MB정부 청와대 대변인	MB
이춘호	사외이사	MB정부 초대 여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낙마/EBS이사장	MB
장치암	상무	MB 청와대 행정관	MB
윤종화	KT캐피탈 감사	MB 청와대 행정관	MB
김규성	KT 엠하우스 사장	MB 인수위 경제2분과 팀장	MB
변철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	MB
이태규	前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	MB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MB
허증수	前 사외이사	MB정부 인수위원/ 향흥 수수 논란 사퇴	MB
서종렬	前 미디어본부장	MB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MB
성극제	사외이사	YS 청와대 행정관, 이석채 회장 대학동문	MB, 이석채
석호익	前 부회장 현 스카이라이프 고문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심의관	이석채
조용택	경영지원 부사장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이석채
이현락	사외이사	동아일보 기자출신 이석채 회장 대학동문	이석채
송도균	사외이사	공직자윤리법 위반의혹(취업제한2년), 방통위부위원장, 이석채회장 근무했던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이석채
차상균	사외이사	협력사 경영진(전, SAP코리아 한국연구소장)	이석채
이석조	KT렌탈 전 경영고문	이석채 회장 사촌동생, 전 주케냐대사	이석채
이성해	스카이라이프 고문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이석채
송정희	서비스 이노베이션부문 부사장	오세훈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단장	오세훈
오세현	전무	오세훈 前 서울시장 동생	오세훈
김기석	KT텔레캅 고문	안기부 기조실장/ 안풍사건 연루	국정원
오정소	KT텔레캅 고문	안기부 차장 / 불법도청팀 재건사건 연루	국정원
임경목	前 KT 네트워크 고문	안기부 실장조현호 前경찰청장이 노무현 차명계좌 출처로 지목	국정원
최재근	前 KT CSV 단장	국정원	국정원
정성복	부회장	검사출신	법조계
남상봉	법무센터장	검사출신	법조계
박병삼	전무	판사출신	법조계
황성진	법무실 근무	황교안 법무장관 아들	법조계
최수영	KTis 감사	한나라당 성북을 위원장	한나라당
윤정식	대외 총괄 부사장	전 청주-충추 MBC 겸임 사장	김재철사장 측근

[이석채 7대 경영재앙]

5 연이은 직원의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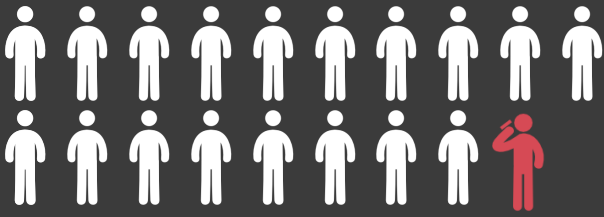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그 많은 사람이
 운명했어도 kt는 끝내 외면
 김은혜 전무 “kt 노동자들 나이가 많아서 그럴 뿐”

연이은 직원의 사망

년도 사망인원

2009

19명



자살 1명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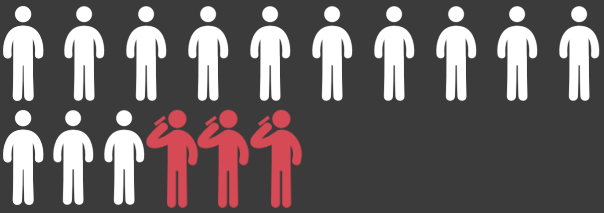
17명



자살 1명

2011

16명



자살 3명

2012

29명



자살 3명

2013

25명



자살 8명

[이석채 7대 경영재앙]

6

탈통신의 결과 줄어드는 가입자,
창사이래 첫 월간 적자

이석채 회장의 야심찬 프로젝트 탈통신, 그러나 결과는 대재앙.
LTE를 계기로 경쟁사 LGU+가 흑자로 전화하던 때에 kt는 지난 해 7월
창사 이래 첫 월간 적자 기록

kt 이동통신 가입자 100만명 감소

1,625만명



2011.12

1,585만명



2012.12

1,532만명



2013.8



2013.7월

kt 100년 사상 최초 월간 적자



-140억원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자 영업망은 무너져 갔고, 이 모든 부담은 또 다시 직원들의 몫이었다.

자폭의 행렬로도 덮여지지 않는 최악의 실적, 이게 이석채의 혁신경영이었다.

[이석채 7대 경영재앙]

7 최악의 비윤리경영

검사 출신 윤리경영실장을 영입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던 이석채가 개인 비리 혐의로 퇴진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그의 비윤리성은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가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통해 알려지자 회사는 반성은 커녕, 이해관 전 위원장을 가평으로 보복 인사한 끝에 해고시켰다. 반면 불법 대포폰을 개통해준 서유열 전 커스터머 부문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석채 회장에게 윤리경영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공포경영이라고 불렀다.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기업에서 윤리경영은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전임 남중수 사장이 개인비리로 구속된 후 윤리경영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석채의 종말도 결국은 개인비리였다.

더 좋은 kt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 kt새노조를 후원한다.

(걱정마세요. 절대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

후원계좌: 067502-04-210518 (국민은행 김미영)